

**삼성전자, 모바일 UCC · Uz 등  
와이브로의 미래 비전 제시**



차세대 통신기술인 '와이브로 (WiBro·모바일 와이맥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모바일 컨버전스' 흐름을 주도해 온 삼성전자가

와이브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이기태 사장은 11월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EEE GLOBECOM 2006(11/27~12/1)'에 참가해 기초연설을 했다.

이 사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현재 IT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 등 서비스 결합은 물론이고 다양한 통신 및 IT기기가 하나로 융합하는 '컨버전스'로, 와이브로가 그 중심에 있다"면서 삼성이 구상하고 있는 와이브로의 미래 비전을 밝혔다.

이 사장은 특히, "와이브로는 기존 홈 네트워크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홈에서 유비쿼터스 라이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와이브로 홈 서비스인 'U(유즈)'를 소개했다.

단말기에 대해서는 PDA 타입, 휴대폰 타입, 노트북 PC 뿐만 아니라 PMP, MP3 플

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휴대용 IT 기기에 와이브로가 탑재돼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장은 이날 "IP,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이 결합된 와이브로는 무선 환경에서 전화, TV,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면서 와이브로를 통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함께 진행되는 전시회 'IEEE COMMUNICATIONS EXPO 2006'에도 국내 업체로 유일하게 참가해 울트라 에디션, 디럭스 MITs 등 제품을 전시하고 와이브로 서비스도 시연했다.

**LG전자, 3분기 연속 국내 TV 매출 1위**

TV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3분기 분기 보고서와 과거 분기·반기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LG전자가 국내 TV 매출액에서 3분기 연속 1위에 올랐다. 또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 동안 한 번(05년 4분기)을 제외하고 모두 1위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각각 2,373억 원, 3,242억 원, 2,485억 원을 기록하며 한국 TV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올 3분기까지 누적 TV 매출(8,100억 원)은 전년 동기(5,605억 원) 대비 45% 증가했다

특히 4~6월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30~40인치대의 평판TV 판매가 급속히 늘어 한국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분기 TV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했다.

당시 전체 TV 중에서 판매량의 약 50%가 PDP나 LCD로 팔렸고, 금액 기준으로 90% 가량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TV 매출액에서 평판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G전자 DDM마케팅팀장 박시범 상무는 "국내 TV 매출 1위는 타임머신과 풀 HD의 성공적인 시장 개척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타임머신TV는 지난해 5월 출시돼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서 15만대 가량 팔렸다.

현재는 37인치 이상 모든 평판TV에 타임머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37인치 이상 대형 평판TV의 약 50%가 타임머신으로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여전하다.

또 지난 7월에는 업계 처음으로 풀 HD LCD TV 풀 라인업(37·42·47·55인치)을 갖췄다.

30인치대에서 50인치대까지 풀 HD LCD TV 제품을 갖추게 된 LG전자는 37인치 이상 대형 LCD TV 중 35% 가량을 풀 HD로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러시아 '볼쇼이' 서 심장병 아동돕기	2006/12/01
2	삼성전자, 디지털 갤러리 개관	2006/11/30
3	삼성전자, 와이맥스 포럼 기술워킹그룹 의장 진출	2006/11/29
4	삼성전자 미국 슬림폰 시장 공략 가속화	2006/11/28
5	삼성 디자인 네트워크, 해외서 실력 호평	2006/11/26
6	삼성전자 LCD, 10월 실적 사상 최대	2006/11/26
7	삼성펀클럽, 파이낸셜타임스 'FT 소비자대상' 수상	2006/11/23
8	삼성전자, 시각장애인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	2006/11/22
9	삼성LCD-TV, 오대양 누비는 호화유람선 점령	2006/11/16
10	뉴욕 삼성체험관, 1백만명 방문	2006/11/19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印尼 어린이에게 '사랑의 손길'	2006/12/01
2	베트남 하노이에 LG전자 '물결'	2006/11/16
3	LG전자 '샤인' 출시 전부터 해외에서 주목	2006/11/29
4	엔비(EnV)로 북미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 공략	2006/11/29
5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모니터 공급	2006/11/27
6	LG전자, 美 PGA투어 스킨스게임 개최	2006/11/27
7	LG전자, 「사랑의 감장 담그기」 행사 열어	2006/11/27
8	레드닷 디자인 컨셉 '최고상' 수상	2006/11/24
9	초콜릿 풀더로 北 美 EVDO시장 공략 강화	2006/11/23
10	LG전자-대우일렉, 홈네트워크 기술표준 선도	2006/11/21

**대우일렉, UAE에 대규모 가전공장 세운다**

대우일렉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규모 가전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대우일렉은 지난 11월 28일 중동 UAE의 국가산업단지(NIC)와 현지 가전공장을 설립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UAE 정부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서 NIC는 중동 최대의 가전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대우일렉은 설비·기술지원을 포함해 약 8500만달러 상당을 수주했다. NIC는 향후 총 2억달러를 들여 내년 3월 공장 착공에 들어간뒤 오는 2008년 6월에 가동할 계획이다. 대우일렉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장 건립외에 자재 공급 독점권을 갖고, 향후 생산·운영 등 제반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는 중동지역 매출이 지금의 두배인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대우일렉은 올해 프리미엄 건강가전과 디지털 영상가전 등의 수요에 힘입어 중동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약 20% 가량 매출신장을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기, PCB 매출 1조 돌파**

삼성전기의 인쇄회로기판(PCB)사업 부문 매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기업이 일반 전자부품 부문에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내 PCB산업이 태동한 지 35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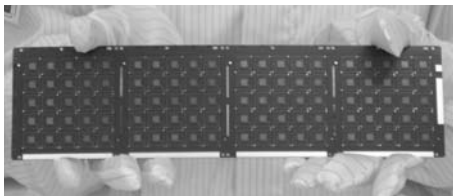
삼성전기는 당초 예상보다 한달 앞당겨 최근 PCB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PCB 분야에서 1조원의 매출을 돌파한 기업은 일본의 이비덴·닛폰맥트론(NM)·CMK 3개사다. 삼성전기는 적기 투자를 통

해 플립칩BGA·칩스케일패키지(CSP) 등 반도체 기판용 PCB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1조원 벽을 돌파하게 됐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인텔 등 국내외 우수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패키지용 PCB를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92년 PCB 양산을 시작, 그해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5년 만인 올해 70배 가까이 성장한 1조 10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오는 2008년 PCB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올해부터 2008년까지 PCB 부문에만 380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부품을 내장하는 '임베디드 PCB', 신호전달 속도를 더욱 높인 '광 PCB' 등 첨단제품의 기술개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송광옥 삼성전기 기판사업부장(전무)은 “일반 전자부품인 PCB에서 1조원을 돌파, 부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감한 투자와 고객 다변화를 통해 2008년 PCB 부문 1위에 오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전자부품, 토털 쿨링 진출**

대우전자부품(주)은 11월 13일 냉각시스템 개발업체 써멀포스(대표 전교석 www.tforce.com)와 투자 및 쿨링 시스템 분야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털 쿨링시스템 분야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우전자부품은 써멀포스가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PC, 모바일기기 및 LCD 디스플레이 등 IT 및 전자제품과 관련된 모든 냉각시스템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대우전자부품은 써멀포스에 대한 지분투자와 함께 각종 냉각시스템에 대한 양산 설비 구축, 제조/생산을 담당할 계획이며, 써멀포스는 제품의 기획 및 개발, 생산 및 양산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양사는 공동 영업 및 마케팅, 그리고 공동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했다.

최근 써멀포스가 자체 개발, 대우전자부품에서 활용할 토털 쿨링시스템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LHP(Loop Heat Pipe)기술과 MEMS(극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나노 원천기술을 토대로 제품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IT 및 전자부품에 있어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방열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최근 디지털TV, MP3용 모듈 및 바이너리 CDMA 칩셋 등과 같은 첨단 전자부품 소재사업 진출을 선언,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우전자부품으로서는 이번 쿨링 시스템 사업 진출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대우일렉, 홈네트워크 기술 표준 선도**

정보통신부 주최로 11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홈네트워크 표준기술워크숍&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앙대학교 ITRC 홈네트워크연구센터에서 출품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1000억 달러 홈네트워크 시장을 겨냥한 LG전자와 대우일렉의 기술표준화 발걸음이 빨라졌다.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1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양사가 공동 주관하는 ‘2006 LnCP 컨소시엄 발표회’를 개최했다.

작년 5월에 창립된 ‘LnCP(Living network Control Protocol) 컨소시엄’은

홈네트워크 기술이 표준화되지 않은 데 따른 업체의 개발부담과 시장확대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LG전자와 대우일렉이 창립한 컨소시엄이다. 창립 첫 해인 지난해에만 32개사가 참여했으나 올해는 12개사가 늘어 총 44개사가 참여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희국 사장과 대우일렉의 CTO인 장규환 전무를 비롯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44개사의 대표와 정부기관 및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홈네트워크 시장은 국내의 경우 지난해 7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9조원으로, 내년에는 12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시장 역시 지난해 77조원에서 올해 90조원, 내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필립스전자, 김태영 부사장 사장 승진 발령



필립스전자는 김태영 현 필립스전자 부사장 겸 의료기기 사업본부장(사진)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취임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신임 김 사장은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필립스전자에 입사한 이래 의료기기 사업본부 창립 멤버로서 의료기기사업본부장·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 북미지역 전략사업 담당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필립스전자는 헬스케어와 라이프스타일 제품 전문 기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아이디에스, 네오비트로에 50억투자

아이디에스는 전자부품용 정밀 유리제품 생산회사인 네오비트로에 약 5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10월 11일 공시했다. 아이디에스는 네오비트로가 발행한 전환사채 및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는 2008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아이

디에스는 네오비트로 지분 88.75%를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회사측은 신규사업인 CCFL용 글래스 튜브 생산에 진출해 사업다각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아이디에스는 70억원을 투자, 경기도 용인시에 CCFL용 글래스 튜브 생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 이레전자, 인니 시장 진출위해 용마와 협력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이레전자산업(대표 정문식)은 인도네시아 전기밥솥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주)용마와 자사의 LCD 및 PDP TV 판매에 협력기로 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이레전자에 따르면 용마는 전기밥솥 제조업체인 용마전기가 상호를 바꾼 회사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전기밥솥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정문식 이레전자 사장은 "두 회사의 마케팅 합의로 이레전자는 미개척지역인 인도네시아에서 용마의 유통망과 A/S망을 활용해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용마에서도 판매상품의 다양화 및 안정적인 고품질의 TV 판매로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레전자는 인도네시아 시장이 과거에는 고가 디스플레이 제품이 판매되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디스플레이 가격의 급속한 하락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2000만명의 인구대국으로 전체 인구의 5%만 제품 구매력이 있는 상류층으로 잡아도 110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시장"이라고 기대했다.

### 아남전자, 영업실적 흑자전환 및 사상 최대 생산량 달성

아남전자는 지난 8월 월간 오디오 생산실적으로는 최대 물량인 10만대 달성에 힘입어 3분기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모두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목표인

매출액 1,000억원과 영업이익의 흑자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남은 금년도 상반기(1월~6월)에 매출액 387억원, 영업이익 -7억, 당기순이익 -18억원으로 흑자전환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지난 3분기에 오디오의 수주증가에 따라 당기실적은 물론 누계에서도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 동관공장은 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도 설립이래 월간실적으로는 최대 생산 물량인 10만대를 달성하는 등 최근 수주물량의 급증에 따라 3분기에는 상반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월평균 920만대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아남전자는 지난 2004년 12월 TV생산 중단 이후, 금년부터 TV사업부 정리에 따른 적자요인이 대부분 해소되고, 금년초 개발, 본격 양산에 들어간 PLAC AV Receiver, HDMI DVD Player와 같은 고부가가치 컨버전스 제품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내년에도 AV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대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 LG이노텍, 복합튜너 양산 개시



LG이노텍은 디지털 튜너에 MPEG 디코딩, VIDEO 인코딩 기술까지 갖춘 세계 최소형의 복합 튜너 'X모듈'을 양산을 시작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번 출하된 디지털 복합 튜너 제품은 유럽형 제품이며 북미형 제품은 12월 중순부터 양산될 예정이다. 이 회사의 'X모듈'은 TV 방송신호 중에서 특정 신호만을 선택해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튜너에 MPEG 디코딩 기술을 추가, 디지털 방송 송수신의 핵심 기능을 하나로 통합된 복합 튜너이다. 크기는 93(길이)×42(높이)×15(두께)mm에 불과하다.

또한, X모듈은 방송 수신 및 제어 기능들을 MPEG 디코더에 내장된 CPU를 통해 모두 구현, TV업체의 설계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LG이노텍측은 “부품업체가 점차 단품 보다는 모듈 및 패키지 형태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번 ‘X모듈’ 양산을 계기로 복합모듈 및 보드 내장 칩셋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SDI, 슬림브라운관 500만대 판매 돌파**

삼성SDI는 작년 2월 양산에 돌입한 슬림브라운관 ‘빅슬림(Vixlim)’이 세계 최초로 누적 판매량 500만대를 돌파했다고 11월 13일 밝혔다.



삼성SDI 브라운관 마케팅 이동훈 상무는 “빅슬림의 500만대 판매 돌파는 브라운관 사업에서 제2의 황금기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원가 절감과 경쟁력 확보 제품 출시 등을 통해 브라운관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는 전체 브라운관 판매량 가운데 슬림 브라운관 비중이 지난 1분기 4%에서 3분기 13.3%로 늘어나면서 향후 브라운관 시장이 슬림 제품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라운관의 두께를 기존보다 15cm 이상 줄인 ‘빅슬림’은 양산 시작 1년 만인 올해 2월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고 6월 200만대, 8월 300만대, 9월 400만대를 각각 돌파했다.

삼성SDI는 평면 슬림브라운관TV가 LCD나 PDP같은 평판TV보다 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다 선진시장에서는 세컨드TV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분석했다. 또 지난해 부산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 들어 멕시코, 중국 선전과 텐진, 헝가

리 사업장 등 생산체제를 글로벌화한 것도 대기록 달성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SDI 관계자는 “8월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 최근에는 한 달 간격으로 누적 판매량이 100만대씩 증가하는 신기록을 작성중”이라고 말했다.

**대성전기, 현대차와 차유리 김서림 예방 세계 첫 시스템 개발**

현대자동차와 국내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자동차 유리창의 김서림 방지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또 탄소나노튜브(CNT) 기술을 적용, 자동차 차제 및 주요 부품의 제조원가를 10% 낮추는 기술도 선보였다.

현대차는 26일 협력업체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개최한 ‘테크데이 행사’에서 대성전기가 ‘김서림 방지시스템’ (IDGT)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IDGT는 자동차 유리 부근의 온도와 습도를 센서로 감지한 뒤, 특정 부위에 김이 서릴 것으로 예상되면 공조장치로 바람을 내보내 김서림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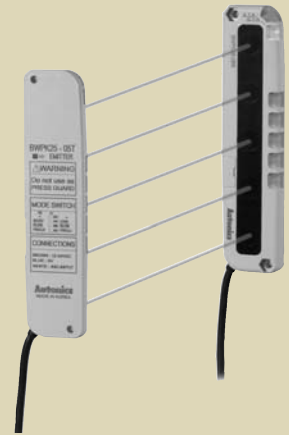
대성전기 관계자는 “차량 앞 유리 밑 센서에는 습도별 이슬점 공식이 내장돼 김이 서릴 위치를 파악, 사전에 제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제품은 김이 서린 부분을 적외선 센서로 탐지·제거하는 ‘사후 방식’이었으며, 사전에 김서림을 완전 방지하는 것은 IDGT가 세계 최초”라고 주장했다. 이 기술은 이르면 2008년부터 현대차 출시 차량을 통해 상용화된다.

‘테크데이 행사’에서는 최첨단 CNT 기술을 응용, 자동차 엔진과 차체에 사용되는 금속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대폭 높이는 기술도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경북 경주의 중견 자동차부품 업체인 대진공업은 CNT를 금속·플라스틱 분말과 고온에서 소결(燒結)시켜, 강도와 연성은 높이면서도 제조원가는 10% 이상 낮추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회사 김현태 과장은 “CNT를 함유한 금속과 플라스틱은 전도성과 강도가 훨씬 강해진다”며 “2007년 상반기부터 신기술이 상용화되면 고급 승용차 외장재나 트랜스미션 부품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원가는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토닉스, 10mm 초박형 피킹센서 출시**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오토닉스가 국산 최초로 두께 10mm의 초박형 피킹센서 BWPK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



오토닉스가 개발한 피킹센서 BWPK 시리즈는, 영역감지용 다광축 포토센서인 에리어 센서의 일종으로서 대상물의 인출을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자체 개발한 프레넬 렌즈와 플라스틱 케이스를 적용하여 10mm 두께의 초박형 슬림 디자인 설계로 공간 제약을 최소화하였다.

BWPK 시리즈는, 검출거리 설정시 Dip 스위치로 Long/Short 모드를 선택함으로써 검출거리 설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투·수광기의 동기선을 제거함으로써 전원의 별도 입력이 가능한 간편한 배선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투광 주파수에 의한 상호간섭 방지 기능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검출 신뢰성을 실현하였으며, 부품 인출 작업 시 정밀한 검출로 탁월한 생산성을 발휘한다.

피킹센서 출시로 국내 에리어 센서 시장의 본격 국산화 기대

한편 오토닉스는 지난 10월 11일 부산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2006 신기술 혁신상 공모전에서 에리어 센서를 자체 개발한 공로를 인정 받아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외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에리어 센서 시장에 피킹 센서를 새롭게 출시하고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산 대비 약 50%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본격적인 국산 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